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오늘은 성만찬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합니다.
2. 말씀 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7월호를 남플 도서관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3. 지난주간 니카라과 단기선교가 은혜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수고하신 선교단원과 기도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캐주얼 시즌 (7~10월) 복장 안내

여름 시즌을 맞이하여 복장을 유연하게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 [여름철 친교(주일 1부 및 주일 2부) 사역 안내]

여름철인 7~8월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여행 및 개인 일정으로 자리를 비우시고, 무더운 날씨로 인해 음식 준비와 봉사에도 어려움이 있어 주일 친교(주일 1부 및 2부) 사역을 잠시 쉬고자 합니다.

대신 예배 후에는 가족과 성도님들 간의 교제를 이어가시며 지역 식당과 카페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를 응원하고 함께 상생하는 뜻 깊은 시간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친교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는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9월부터는 다시 즐거운 친교의 자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목회후원 사역팀 -

교육부 소식

•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식

1. 유아 유치부 큐티학교 오픈! 유튜브 "남플유아유치부" 채널에서 '예수님 이랑 나랑' 큐티가 매일 진행됩니다.

• Y.E.M. (Youth, English, Multicultural)

1. Sunday Service @ 10:30 am

예배 및 모임 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묵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수요 기도회 (Wed. by Zoom) / 7:30 pm
 제자훈련 (Thur./Biweekly) / 6:3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사명 선언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사랑을 경험한 예배자들이

말씀으로 양육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지난주 헌금 통계 (6/21, 6/28)

일반헌금 \$19,367.00	십일조: \$11,441.00 주 일: \$1,888.00	감 사: \$3,370.00 기 타: \$2,668.00
지정헌금 \$3,271.00	목장선교: \$1,191.00 건 축: \$80.00	개인선교: \$2,000.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2026년도 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습3:17)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권태홍
Rev. TaeHong
Kwon

남부 플로리다
South Florida

감리교회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mcosf.org

< 성령강림후 여섯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 송영 Doxology / 살아계신 성령님

▲ 참회기도 Prayer of Repentance

▲ 사죄의선포 / 인도자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찬송 Hymn / 550장(통248)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기도 Prayer / 노효영 권사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 주 찬양해 -

교회소식 Announcement

영상광고

▲ 봉헌 및 봉헌기도 Offering 다같이

▲ 성경봉독 Scripture엡(Eph) 4:2-3..... 다같이

설교 Sermon 권태홍 목사

< 성령의 열매 (4)- 오래참음 >

Fruit of the Holy Spirit (4)-Patience

성만찬 Holy Communion

▲ 파송찬송 Closing Hymn/ 보혈을 지나

▲ 축도 Benediction 권태홍 목사

▲ 표에는 일어섭니다.

2부(10:30am)

인도자 Presider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사도신경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세,

은혜로다,



은혜.

기도 Prayer / 구자현 장로

찬양 Choir / 할렐루야 찬양대

- 주 찬양해 -

2026년 7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7월 5일	1부	열매목장	담당자	노효영권사	
	2부			구자현장로	
다음주 7월 12일	1부	열매목장	담당자	이운섭장로	
	2부			김미라권사	

설교요약

오늘 우리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5:22-23).

오래 참음은 단순히 억울한 상황을 버티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헬라이어 “마크로뒤키아”는 ‘분노하기까지 오래 걸리는 상태’, 즉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인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빠른 해결과 즉각적인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은 깊어지고, 하나님 의존은 더 단단해지며, 성품은 성숙해집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요셉을 통해 오래 참음의 길을 보여 줍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즉시 성취를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렸고 결국 약속을 이루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요셉 역시 꿈을 받았지만 긴 고난과 억울한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붙들었고,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창세기 50:20).

이처럼 성경적 오래 참음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또한 오래 참음은 사랑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4)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관계를 지켜내는 시간의 성품임을 보여 줍니다. 오래 참음이 없는 사랑은 쉽게 무너지고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역시 서로를 향해 오래 참고 용납하는 삶으로 부름 받습니다. (골로새서 3:12-13, 베드로후서 3:9). →

<설교 요약>

오래 참음은 결국 열매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인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통로라고 말씀합니다(히브리서 10:36). 기다림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음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태도이며, 결국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래 참음은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간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로, 원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포기가 아니라 기다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 주님,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의 삶과 관계 가운데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 < 나눔 질문 >

- 1) 이번 설교를 통해 “오래참음”이 단순히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깨달아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2) 내가 최근 삶의 자리에서 “조급함” 대신 “기다림”으로 반응했던 순간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세요. 그때 어떤 마음의 변화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나요?
- 3) 아브라함이나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내 삶에도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 4) 관계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풀어졌던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에 보고, 그때 배운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 5) 우리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오래참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번 한 주 동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행동 한 가지는 무엇 일까요?